

# 참을 수 없는 기쁨의 순간을 위해 최선을 다한 우리

「제2회 전국 대학생 소 품질평가대회」 대상팀

건국대학교 서울캠퍼스 임세영



▲ 좌로부터 임세영, 김도형, 김재민 사무관, 고은별

4월 초, 학교 게시판에 포스터 하나가 붙었다. 5월 25일, 「제2회 전국 대학생 소 품질평가대회」를 알리는 포스터였다.

작년에 선배들의 출전을 관심 있게 봤던 우리는 다른 친구들이 신청하기 전에 바로 참가 신청을 하였다.

하지만, 우리의 품질평가 교육 일정은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교육 첫날 부천에 있는 서울지원으로 가야 했는데, 경기도 군포에 있는 축산물품질평가원 본부로 가는 바람에 결국은 약속시간에 늦고 말았다. 게다가

우리 세 명의 학교 수업시간이 전부 제각각이라 교육 일정을 잡는 것이 쉽지 않았다. 그래서 양희찬 과장님과 이야기 끝에 아침 일찍 많은 도체를 보면서 교육을 받기로 했다. 새벽에 가야 한다는 부담감은 컸었지만 서울지원의 김경백 인턴이 아침마다 우리를 태워준 덕분에 편히 갈 수 있었다. 필기시험은 황용준 학교 선배의 도움을 받아 품질평가대회 '필살 Summary'를 만들면서 학교에서 직접 만나 같이 공부를 하기도 했고, 못 만날 때에는 메일을 주고받으며 대회 준비에 매진하였다. 이렇게



아침에는 실기 공부를, 점심에는 학교 수업을, 저녁에는 필기시험 준비를 하며 대회를 위한 강행군이 시작하였다. 그러나, 체력에는 자신있던 우리팀도 대회를 약 1주일 정도 남겨두었을 때쯤 무리한 나머지 건강에 적신호가 오기 시작되었다.

그러나 우리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이른 아침 품질 평가로 바빠 귀찮으실 텐데 그런 내색 하나 없이 우리의 질문에 도체 하나 하나 같이 박주며 설명해 주시던 서울지원의 고마우신 분들과 '이제 일주일만...'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우리는 대회 준비를 마무리 해 나갔고, 대회는 점점 다가왔다.

대회 전날, 대회장 주변으로 먼저 내려갔다. 컨디션 조절도 하고, 마지막 필기 공부에 최선을 다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새벽에 잠깐 눈을 붙이고 일어나서 대회장으로 향했다.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대회장 분위기가 매우 활기차 긴장을 덜 수 있었다.

그것도 잠시 개최식을 마치자마자 총 4개 조로 나뉘어서 1번부터 15번까지 차례대로 4명씩 바로 실기평가가 시작되었고, 우리 팀은 2번, 11번, 15번에 각각 배정되었다. 첫 번째로 시험을 치른 은별이가 제일 부담이 되었을 텐데도 긴장하지 않고 배운 대로 잘 하고 나왔다고 했다. 역시 침착한 성격의 은별이었다. 그리고 도형이는 교육받을 때부터 잘한다고 칭찬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대로만 하면 문제없어 보였고 다행이 무리 없이 평가를 마쳤다고 했다. 나는 맨 마지막 번호인 탓에 대기 시간은 길었지만 덕분에 마지막까지 이론공부에 최선을 다할 수 있었다. 이론평가는 열심히 공부한 덕에 세 명 모두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었다. 점심식사 후 품질평가원의 소개와 유익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

드디어 시상식 시간이 다가왔다. 앞서 호명되는 다른 학교의 상 타는 모습에 좀 전까지의 우리들의 자신감은 점점 사라져갔다. 마지막 대상 발표를 남겨두었을 때 거의 포기한 상태였는데 우리 학교 이름이 들렸다! 그 순간 제대로 들은 게 맞나 싶었다.

그리고 세 명의 이름이 호명 되었을 때 동시에 소리 지르며 앞으로 뛰어 나갔다. 나중에 사진을 보니 우리 모두 기쁨을 감출 수 없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상을 받으러 나갔을 때까지도 대상이라는 것을 실감하지 못했지만 많은 분들의 축하인사에 '우리가 대상이구나' 라고 실감했다.

비록 대회 준비가 쉽지만은 않았지만 준비하는 동안 소 도체 품질평가에 대하여 많은 것을 배웠고 모든 과정들이 대학생활에서의 값진 경험과 추억이 되었다.

대회 준비하는 내내 우리에게 많은 격려와 도움을 주신 서울지원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다. **은규정**